

일본 신화: 꽃의 공주

일본 신화 중에는 천지개벽의 신화에 이어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가 손자인 니니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 천하를 다스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천황 가문이 지닌 신들의 계보를 나타내는 일련의 이야기는 니니기와 꽃의 공주인 고노하나사쿠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.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,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의 아버지인 산의 신, 오야마쓰미에게 결혼을 허락받고자 결심합니다.

오야마쓰미는 두 사람의 결혼에 동의를 하면서도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조건이란, 고노하나사쿠야와 함께 바위의 공주인 언니 이와나가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니니기는 고노하나사쿠야만을 아내로 맞이하며 아름답지 못했던 이와나가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. 격노한 오야마쓰미는 니니기가 두 딸과 결혼을 해야만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꽃은 아름다울지언정 허무하지만, 바위는 일견 화려함은 없으나 영원합니다. 이와나가를 거절한 니니기는 불사의 삶을 놓치고 말았습니다. 고대 일본에서 이 같은 운명적인 선택은 살아 있는 신이라고 여겨왔던 일본의 천황이 보통의 인간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고노하나사쿠야는 곧장 세쌍둥이를 잉태하지만, 니니기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. 고노하나사쿠야는 신의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, 오두막에 틀어박혀 직접 불을 질렀습니다. 그리고 3명의 남자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화염 속에서 나타났습니다.